

당신의 한 표가 '금고'를 여는 '열쇠'다

기고

이재갑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경상남도에서 설립된 5개의 금고에서부터 시작했다. 1963년 5월25일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 5월26일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6월3일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정암마을, 6월9일 의령군 의령면 동동리 외시마을, 6월12일 남해군 남해면 평리 마산마을에서 새마을금고의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31일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돼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합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경제적 기능과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에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는

데, 이사장이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주재하고 금고의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함평전지새마을금고'는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25년 3월5일 수요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왔으나, 2023년 8월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행위 등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정적인 투·개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후보자와 선거인의 선거편의 증진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공직선거등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다. 그런 만큼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무능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고 생활 전반을 잘 꾸려나갈 살림꾼을 이리저리 따져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금고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의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의 한 표가 '금고'의 소중한 '자산'이다.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투표소에 나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금고이사장으로서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어떤 후보자가 이사장이 되어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고의 사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해안을 가진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여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이끌 참된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뿌듯함을 만끽해 보길 기대해본다.

社說

엄정한 수사로 내란전모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만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체포가 끝은 아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명의 48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젠 그 결기 그대로 당당히 수사를 받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 쿠데타의 주역'이다. 이날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불법적인 국회 봉쇄' 등을 적시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도 제시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

기로 마음 먹었다'는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 놓고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에는 담화를 통해 '국회에 총을 들고 갔음에도 소수의 병력만 2시간 넣 어놓은 것이 그리 큰 죄냐'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라는 것은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꾀변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그 국민은 어느 국민인지 묻고 싶다. 15일에는 체포 직전 녹화된 담화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이제 시작일뿐이다. 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범죄를 특정해 그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모든 가담자와 책임자도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작금의 헌정 질서 혼란과 국가 신인도 추락,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

적극적 대응 필요한 청소년기 아침결식

광주청소년 결식률 44.4% 달해

광주지역 청소년 44.4%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44.4%로 전국 평균 42.4%보다 높다. 대전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21년 38.7%, 2022년 39.3%, 2023년 43.2%, 2024년 44.4%로 광주 지역 청소년 아침 결식률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침밥을 거르는 데는 '등교 및 수면 부족 등 시간문제', '귀찮아서', '아침을 안 먹는 생활습관' 등 이유도 다양하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등 학업시간에 쫓긴 나머지 아침밥조차 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년기에 아침 결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기억력,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습 수행 능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영양 섭취로 인해 비만 등의 성인병까지 초래한다고 한다. 아침밥을 먹는 학생이 안 먹는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좋으며 학교생활 등을 건강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만큼 청소년기 아침 결식이 중요한 이유다. 청소년기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침 식사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아침밥 먹기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교육당국의 다양한 대책도 시급하다. 일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종종 벌이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거 쌀이 없어 굶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쌀이 남아도는 시국이다. 쌀의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한창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교육당국과 가정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아침식사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아침 결식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두 대의 달 탐사선을 탑재한 스페이스 X 팰컨9 로켓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팰컨9는 미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와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AP/뉴시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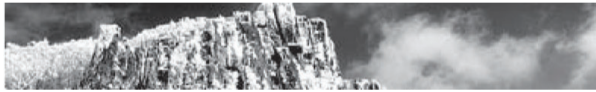
민중화운동이나,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들이 있다. 비장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때창을 하는 민중가요다.

민중가요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널리 알려진 노래들도 많다. '상록수',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등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노래다.

계중 '애국가 다음으로 온 겨레가 아는 유일한 노래'라는 수식어가 붙은 민중가요도 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72년 유신철폐 시위에서, 87년 6월항쟁 시위에서 수십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쉬도록 불렀던 '아침이슬'이다.

이 노래는 대중의 갈채를 받는 '앞것'이 되기보다 스스로 얼굴 없는 '뒷것'이 되길 원했던 김민기가 1971년 세상에 내놨다. 이후 '아침이슬'은 때로는 청아하게, 때로는 결연한 목소리를 내뿜는 양희은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 '아침이슬'을 처음 들은 양희은이 단박에 필(feel)이 꽂혀 서울재동국민학교 1년 선배인 김민기를 쫓아 자신의 첫 앨범



에 수록하면서다.

지난 12월 3일 늦은 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여 일이 지나는 동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열찬 시위가 이어졌다.

집회문화도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의도치 않게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가 만나는 세대통합도 일어났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장엄하게 민중가요를 부르던 세대와, 지드래곤의 '빼박하게', 투에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시위 필수곡으로 올리는 청년세대들이 함께한 탓이다.

한 장의 사진과 그림이 국민을 울리고, 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차디 찬 아스팔트위에서 은박지 한 장 겨우 둘러쓴 채로 하얗게 내리는 눈을 고스란히 다 맞고 밤샘 집회를 하는 '인간 키세스'들이다.

방송을 통해 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가 했던 말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힘을 발휘한다.-이토 히로부미"

그렇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힘, K-멘탈이 누천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온 것이 분명하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